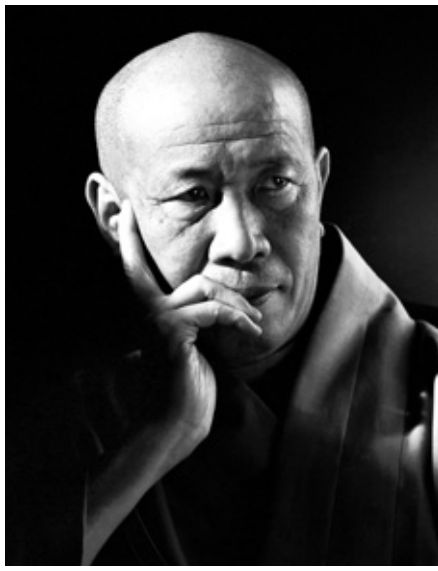


작은 것을 통해 전체를 본다



경주 굴불사지 석조사면불 약사여래좌상(통일신라)경상북도 경주시 동천동 산4



관조 스님(1943~2006)

국립춘천박물관, 9월 13일까지 관조 스님 사진전 '부처님의 손' 개최

불상 조각은 불교 진리를 표현하는 하나의 방법이다. 부처님의 심오한 진리를 표현하고 전달하는 관점에서 조각은 언어보다 훨씬 어렵다. 이번 상황에서 부처님의 진리는 오로지 손[手印]을 통해 표현되고 전달된다. 한 손으로 땅을, 다른 한 손으로 하늘을 가리키는 탄생불의 수인은 생명의 존엄성을 선언한 것이고, 곁가부좌한 상태에서 오른손을 무릎 밑으로 내려 땅을 가리키는 항마촉지인은 깨달음 직전 악마들의 강한 유혹에 대한 굳센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국립춘천박물관(관장 이내옥)은 8월 9일~9월 13일 기획특별전 '부처님의 손'을 개최한다.

이번 기획특별전은 사진작가인 관조 스님(1943~2006)의 유작 중 엄선된 20점을

통해 우리문화의 근간인 불교문화재에 담긴 아름다움을 관객에게 전달하고, 동시에 부처님의 손에 담긴 미학적 가치를 지관 스님의 법어와 시인들의 글을 통해 재해석하여 불교문화재에 담긴 의미를 새롭게 느껴 볼 수 있는 전시이다.

관조 스님은 사진예술을 통해 부처님의 진리를 전파하고자 노력했던 스님이자 사진작가로 <승가(1980)> <한줄기 빛> <사찰꽃살문> <님의 풍경> <사천왕> 등 20여권의 사진집을 출간했다. 이 중 <사찰꽃살문>은 2005년 프랑크푸르트도서전 '한국의 아름다운 책 100선'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전시에서 출품된 작품은 경주 굴불사지 석조사면불 약사여래좌상을 비롯해 서산 용현리 마애여래삼존상, 강릉 신복사지 석조

보살좌상 등 전국에 흩어져 있는 불보살의 수인을 촬영한 작품 20점이다.

전시된 사진작품에는 조계종 총무원장을 지낸 지관 스님의 법어와 현재적 관점에서 재해석한 우리나라 대표 시인 19명의 시도 함께 전시된다. 이들을 모아 관조 스님 행장, 불상수인 해설원고 등을 덧붙여 50페이지 분량의 도록을 발간했다.

국립춘천박물관은 "이번 관조 스님 사진 전시를 통해 삼국시대부터 고려시대에 걸친 우리나라 불교 수인의 아름다움을 소개하고자 했다"며 "관조 스님이 추구했던 '사소하고 작은 것을 통해 전체를 보고자한 화엄세계[-微塵中舍十方]' 정신을 관람객들에게 전달하고, 과거 유물의 정신을 현대 시인들의 화두와 같은 시를 붙임으로써 관람객들의 창조성을 자극하는 이색 전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너는 기자

불꽃처럼 살다 바람처럼 사라져

광주시립미술관, 8월 21일까지 최승희 탄생 100주년 기념전

최승희는 '동양의 이사도라 던컨'에 비유되는 한국이 낳은 세계적 무용가다. 최승희는 1930~1940년대 한·일·중국 아시아는 물론 세계를 활동무대로 활약하며 '전설의 무희'라는 찬사를 받았다.

광주시립미술관(관장 황영성)은 최승희(1911~1969) 탄생 100주년 기념 '불꽃처럼 바람처럼, 무희 최승희' 전을 8월 21일까지 개최한다.

최승희는 일제시대 민족의 꽃으로 세계적 무용가로 평가받기도 했지만, 일제강점기와 해방, 민족분단이라는 역사적 소용돌이를 거치며 친일예술가, 월북무용가라는 이념적 굴레를 쓰고 예술가로서 제대로 조명 받지 못한 예술가이다. 이번 전시의 타이틀 '불꽃처럼 바람처럼, 무희 최승희'는 드라마틱한 최승희의 삶에 대한 비유이기도 하다.

최승희는 불교에서 힌트를 얻은 '보살춤'으로 우리 민족의 고유한 정신을 세

이면 어디든 끌려가 공연을 해야 했다. 이때 최승희는 불교를 무용으로 승화시켰다. 그는 몽고를 돌아 다른 전쟁터로 이동할 때 윤강석군을 방문했다. 윤강석군은 1500여 년전에 만들어진 중국최대의 석굴사원으로 동굴에는 5만 1000개 정도의 불상이 조각돼 있다. 최승희는 이 거대한 불교예술에 큰 감명을 받아 불상의 다양한 자세를 무용으로 승화시켰다. '석굴암의 벽조'가 그 대표적인 작품이다.

한국 현대무용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평을 듣는 최승희가 생전에 춘 춤은 300여 가지나 된다. 이들 춤의 대부분은 우리 민족의 정서와 맥을 같이 하고 있다. 물동이춤과 화랑춤, 천하대장군춤, 고구려춤 등이 그것이다.

170cm의 훗날한 키와 가름한 얼굴의 미인이었던 최승희가 춤사위를 하면 관객들은 숨을 죽이고 지켜볼 정도로 황홀했다고 한다.

이번 전시에서는 최승희 사진 150여 점과 최승희를 그린 회화작품, 공연 리플렛, 서적, 언론보도 기사 등 희귀자료를 통해 최승희의 삶과 예술세계를 다각도로 조명한다. 또한 TV에 방영됐던 최승희 다큐멘터리와 최승희가 월북 후 안무해 복한 최초의 천연색 영화로도 제작된 민족무용극 '사도성의 이야기' 등 영상물을 상영, 다양한 자료와 매체를 활용해 최승희의 드라마틱한 삶과 예술세계를 역동적으로 보여준다.

최승희는 1940년대 일본군 위문공연을 하고 공연 수익금을 일제 군부에 기부한 행적들로 인해 2009년 친일인명사전 명단에 포함됨에 따라 엇갈린 평가와 여론이 불거졌다.

광주시립미술관 김희량 학예연구사는 "전시 타이틀은 조국을 잃은 암흑과도 같았던 시대에 불꽃같은 예술혼을 발휘한 위대한 예술가에 대한 경외의 표현이자 격동의 근현대사 틈바구니 속에서 이리 저리 바람처럼 떠돌았던 삶, 그리고 죽어서까지 정치적 이념적 줄다리기에 서있는 비운의 예술가에 대한 연민의 뜻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광주시립미술관은 "이번 전시가 일제시대 민족의 꽃으로 세계적 무용가로 활약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제강점기와 해방, 민족분단이라는 역사적 소용돌이를 거치며 친일예술가, 월북무용가라는 이념적 굴레를 쓰고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한 최승희 연구와 조명사업에 다시 한번 도화선 역할을 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062)613-7134 이너는 기자



1942년의 작품. 보살춤은 최승희의 춤에서 가장 대표적인 작품이다. <광주시립미술관 하정웅 컬렉션>

해외공연서는 언제나 '코리안 댄서' 라고 밝힌 '동양의 이사도라 던컨'

계에 널리 알려졌다. 그는 외국서 공연을 할 때면 스스로 '코리안 댄서' 라고 밝히고 지도를 보여주면서 "바로 이곳이 우리 땅이다. 코리아는 지금 식민지 상태이다. 조선민족의 예술성은 우수하다"라고 당당히 말했다.

1937년 미국 뉴욕 브로드웨이를 시작으로 1938년 유럽순회공연을 마친 최승희에 대해 프랑스 '르 피가르'지는 "신이 아주 환상적인 동양 최고의 무희"라고 극찬했다. 이때 당시 파리공연에서 주목받은 춤이 최승희를 대표하는 춤으로 평가받는 보살춤이다.

최승희는 독실한 불교신자였기에 보살춤에 남다른 애정을 보였다. 불국사를 여러번 참배했으며, 북에서 숙청당한 후에도 북한지역의 여러 사찰을 돌아보기도 했다.

유럽 공연의 성공으로 다시 뉴욕 브로드웨이에 진출한 최승희는 1930년대 후반 유럽, 미국, 중남미 등에서 150여 회의 공연을 하며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다. 그러나 최승희는 1941년 12월 일본의 진주만 공격으로 태평양 전쟁이 발발하면서 만주와 중국에 주둔해 있는 일본군 위문 공연에 투입돼야 했다. 공연 횟수가 100회가 넘을 정도로 그는 관동군이 있는 곳



1936년 최승희의 발랄한 단발머리. 이 단발머리는 남편 안익태의 권유에 의한 헤어스타일이다. 그래서 최승희 하면 단발머리가 연상됐다고 한다. <광주시립미술관 하정웅 컬렉션>

제26회 불교미술대전 요강 발표

작품만으로 심사 진행 10월 20일까지 접수

조계종 문화부(부장 진명)와 대한민국 불교미술대전 운영위원회는 제26회 불교미술대전 요강을 공개했다.

이번 불교미술대전은 별도의 작품설명서 심사과정 없이 작품만으로 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작품분야는 회화, 조각, 공예 등 세 부문으로 실시된다. 작품규격은 회화의 경우 세로 227cm×가로 181cm 이내, 조각은 높이 180cm×폭 180cm×두께 120cm 이내, 공예 높이 180cm×폭 120cm×두께 120cm 이내. 규격을 초과하거나 액자에 유리를 끼운 작품은 접수가 불가하다.

주최측은 9월 19일~10월 20일 응모원서

를 배부하고 10월 17~20일 4일간 작품을 접수받을 계획이다.

작품접수자는 작품과 작품설명서, 참가신청서를 가지고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1층 나무갤러리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응모원서 등 제반서류 양식은 조계종 홈페이지(www.buddhism.or.kr)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심사결과는 10월 25일 조계종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되며, 수상작품은 11월 29일 시상식에 이어 12월 15일까지 불교중앙박물관에 전시된다. 조계종 총무원장인 대상에는 1500만원, 총무원장 및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문화재청장상인 최우수상 두 명에는 각 500만원 상금이 수여된다. (02)201-1772 이너는 기자

외규장각 의궤 특별전시 음악회

국립중앙박물관(관장 김명나)은 8월 6일 국립중앙박물관 열린마당에서 외규장각 의궤 특별전을 기념하는 '기념음악회'를 개최했다.

발레트 이동건의 사회로 시작된 1부에서는 국악부 전통국악대의 퍼포먼스와 판소리 가수 박완의 무대가 꾸며졌다. 이어 2부는 영화배우 이준기의 사회로, 가수 박효신 앤디 이완 에픽하이 양재찬 걸스데이 등의 무대가 마련됐다.

한편 중앙신도회(회장 김의경)는 '조선왕실의궤' 한국기념 '일파만파(一波萬波)' 포토존을 8월 3~7일 서울 인사동 북인사마당에 열었다. 행사에서는 사진전 '조선왕실의궤가 들어오기까지의 경과' '악탈문화재 현황'을 열었으며 '조선왕실의궤그림' 등을 전시했다. 노덕현 기자

프리미엄급 명품홍삼

하안거夏安居 특별 시은施恩 행사

정수精水와 원기元氣를 보補하는 **홍삼紅蔘**

藥不活人약불활인 약으로 사람을 다 살리지 못하고 病不殺人병불살인 병으로 사람을 다 죽이지 못하며 氣盡命盡기진명진 기운이 다하면 수명이 다 하는 것 是貴養氣시귀양기 기를 기르는 것을 가장 귀하게 한다

고품질, 소량한정 생산으로 수행정진 중이신 스님에게 한정판매 특별한 대중공양의 소중한인연

업선된 6년근100% 홍삼주근(몸체)추출진액 (잔뿌리를 넣지않은 순수 주근추출) 맛·향·효능에 있어서 차별화된 고품격홍삼 정진중이신 스님들의 피로회복·체력증진·면역력증진

홍삼진액 제대로 한번 만들어드립니다

특홍삼진액	천천	100ml	60포	87만
홍삼진액	천천	100ml	60포	37만
홍삼진액	지제	100ml	60포	27만
홍삼진액	양상	100ml	60포	17만

* 5Box 이상 대중공양시 10% 할인

6년근 명품홍삼 기세원 제품구매 및 문의 053)743-7726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한인동 요기마을

민속죽염

23년전통 조상의 얼과 혼이 담긴 우리 민족의 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 좋은 소금"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2.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3.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4. 정혈작용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기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9번 구운	가 루 지죽염 125g	40,000원
	가 루 지죽염 230g	73,000원
	알갱이 자죽염 125g	43,000원
	알갱이 자죽염 230g	78,500원
2번 구운	보급형 민속죽염 1kg	35,000원
	(음식조리용·양치용·피부미용)	
	4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	

* 자죽염 구매시 시은품(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10g) 증정 회원우대

주문 및 상담: 016-823-0483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jy.co.kr

20년 오랜습씨 탕화불상에술원 갈상

8각좌대**대홍보부처님 전문염가조성**

100불 · 1000불 · 10000불 · **항보소불도배**

있는 곳: 경북 경주시 성전동 한빛길 28번 14호

문의: 010-5595-8533

알하는 곳: 054) 773-8533

전강대선사님 인가 제자 대원 문재현 선사님

정맥선원 여름수련회

77조 전강 대선사님의 인가제자 78대 대원 전법선사님께서 주재하시는 정법도량, 국제 정맥선원이 여름수련회를 개최합니다. 명안종사인 대원 선사님이 하택 신회대사의 현종기를 수련회 기간 동안 법문하십니다. 현종기는 육조 대사의 법의 골수를 담은 법음입니다.

* 모든 종파와 종교를 초월하여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일 시: 8월 11일(목) 오후 2시 ~ 8월 15일(월) 오후 2시

회 비: 1인 10만원 / 가족할인 1인당 8만원

준비물: 세면도구, 간편복장(밝우 대어, 현종기 무료제공)

전 화: 031-531-8805 / 010-3880-8980

위 치: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음현리 14번지

홈페이지: www.zenparadise.com

* 여름수련회로 인해 8월 전국법회는 쉽니다.